

사천N

SACHEON MAGAZINE

2020. 9월 (통권293호)



해무와 사랑에 빠진 대교 - 이순영

第二故郷

제 이 고향

伴妙 朴完守
반묘 박완수

偶來定着處 우연히 왔다가 정착한 곳
우래정착처
南道端泗川 남도의 끝단 사천.
남도단사천
无故無親友 연고도 없고 친구도 없지만
무고무친우
一見鍾情遷 첫눈에 반해서 이사했다네.
일견중정천
寄情翰墨樂 시문과 서화에 마음 쏟아 즐기며
기정한묵락
有時舒耕田 때로는 한가롭게 채원을 일구네.
유시서경전
鮮菜提味覺 선채에 미각을 돋우며
선채제미각
釀果根待天 과일과 약초뿌리로 술 빚어 때를 기다리네.
양과근대천
閑情遠俗境 한가한 정에 세속을 멀리하고
한정원속경
時而幽望雲 때로는 그윽하게 구름을 바라보네.
시이유망운
夕陽紅頗美 지는 해 붉음도 자못 아름다우니
석양홍파미
偕老終餘年 해로로 남은 생 마치리라!
해로종여년



박완수

·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졸업
· 前 대우그룹 임원 해외사업부문 역임
· 사천 향교 구암한시협회 회원

CONTENTS

VISION

04

- 04 특집 - 휴가철 대박난 사천바다케이블카
- 06 기획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 08 시정소식 - 읍면동 소식
- 09 의회소식 - 이삼수 의장협의회회장 추대 외 1
- 김영애 사천시의원

STORY

12

- 12 사람&단체 - 신연자 주부민방위기동대연합회장
- 정기현 상공회의소 회장
- 16 기획 - 항공MRO, 사천에서
- 18 마시뜨라 - 완사시장 맛집투어 1탄
- 20 알림 - 내년에 만나요(사천에어쇼, 농업한마당)
- 22 사천의 보물 - 세종대왕태실지와 단종태실지 ㉓
- 24 연재코너 - 우리 문화유산 둘러보기: 감모재
- 어때요? 항공산업 23탄
- 길이름따라 떠나는 사천이야기: 신덕길
- 사천이야기를 담은 사자성어: 화수지회

WITH

31

- 31 문화생활정보 - 시정 문화예술 알림
- 34 건강 - 암 조기발견 중요
- 35 고맙습니다 - 착한임대인 운동
- 36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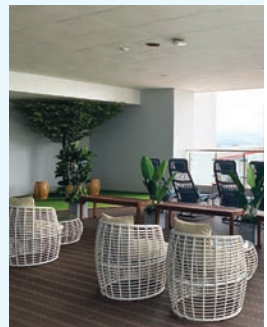
휴가철 대박난 사천바다케이블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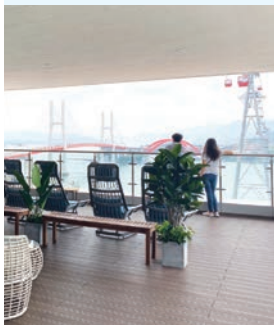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천의 관광지는 어디일까요?

전국의 유명한 관광지를 조금이라도 돌아본 관광객(여행을 즐기는 관광객)라면 남해안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사천바다케이블카를 손꼽지 않을까. 서슴없이...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을 맞으면서 사천바다케이블카는 전국의 관광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한 번도 안타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타본 사람은 없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다. 지난 7월말부터 주말에만 평소의 3배인 1만5000여명이 사천바다케이블카를 탑승했다. 평일에도 사천바다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하루 평균 5000명의 관광객이 사천을 방문하고 있다.

최근의 하루 평균 이용객수는 코로나19가 집중적으로 확산되면서 이용객의 발길이 뚝 끊어졌던 지난 3월 한달 간 전체 탑승객 수보다 많은 수준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명소를 찾아 휴가를 즐기는 관광객들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야외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사천바다케이블카에 야간경관조명이 설치되면서 ‘밤이면 밤마다’ 한려수도 삼천포 앞바다에는 화려하고 환상적인 빛 축제가 펼쳐지고 있다. 이제는 ‘삼천포 밤바다’를 보면서 연인들끼리는 달콤한 사랑을 속삭이고, 가족들끼리는 소중한 추억을 듬뿍 담아가지 않을까.

하지만, 사천바다케이블카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탈 수 없다. 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다. 그리고 탑승객은 ‘적외선 무균소독실’을 통과해야 하고, 탑승장에 입장할 때는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 확인과 손 소독제 사용 등 방역지침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된다.

사천바다케이블카는 대방정류장을 출발해 바다를 가로지르는 초양정류장을 경유해 산 구간인 각산정류장에 도착하는 총 길이 2.43km의 코스로 운영된다.

각산전망대에 오르면 남해안의 크고 작은 섬과 시원한 푸른 옥빛바다와 ‘한국의 아름다운 길’ 대상에 오른 창선-삼천포대교가 한눈에 보인다.



문화체육과 항공우주테마공원의 조합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지상 3층 규모, 2023년 준공

한국의 항공산업 역사와 함께한 사천시 항공우주테마파크, 여기에 별들이 모여 별자리를 이루듯 문화체육공간과 항공우주테마공원이 연계하여 새로운 건축적 공간여행과 지역사회의 새로운 소통을 유도하는 사천시만의 새로운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선다. 지상 3층 규모의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25M, 6레인),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등 국민체육센터와 주민자율공간, 다목적홀, 카페 등으로 구성된 생활문화센터의 복합시설로 2023년 5월 준공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130억 원이다.

입체적 커뮤니티 공간 조성

지상 1층은 사이트 내 위치한 드론광장 및 물놀이 공원과 연계하여 주요 프로그램인 수영장이 전면부에 배치된다. 지상 2층은 수영장 상부에 실내 놀이터를 배치하여 보호자들의 대기시간 동안 정보공유 및 커뮤니티가 이뤄지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지상 3층에는 탁구장과 다목적 강당을 배치하여 프로그램의 독립적인 영역성이 확보된다.

기존의 수직적 공간을 수평적 볼륨 세 개로 분절하여 다원적으로 이어진 공간으로 만들어진다. 길로 도시를 잇고 공유의 기능을 엮는 방식으로 분절된 세 개의 볼륨과 광장들은 집합적 풍경을 만들어 새로운 건축공간여행을 약속한다.

기존의 공원과 연계된 내외부의 입체적인 커뮤니티 공간들은 주민들의 다양한 일상들이 마을의 이야기로 확장될 수 있는 건축적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자연과 조화되는 시민들의 공간

사이트 내 자연습지와 공원과 연계성을 위해 외부테크를 입면 조형에서 강조하여 자연의 흐름과 산책로가 서로 다른 영역의 프로그램을 이어주는 입면계획으로 자연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사천시의 이미지 및 주변 자연경관의 특성(테마공원, 사천강, 반룡산)을 반영해 자연친화적 이미지 조성 및 체육센터의 상징성을 부각하게 된다.



SACHEON NEWS

읍면동 소식

2020 사천시 국민디자인단 위촉 및 발대식



사천시가 8월 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0 사천시 국민디자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시청 홈페이지 홍보 및 추천 등을 통해 지원자를 선발,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 등 9명으로 최종 구성되었으며 사천 청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 서비스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송도근 사천시장은 국민디자인단원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사천소방서, 아파트 화재를 막고자 기관·단체장 전부 나서



사천소방서(서장 최만우)가 8월 14일 사천시 동금동 소재 삼천포에미지아파트에서 사천시 기관(단체)장과 합동으로 아파트 화재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하영제 국회의원, 송도근 사천시장 등 유관기관과 시민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캠페인에서는 ▲에어컨 실외기 화재위험성 홍보 ▲아파트 화재발생 시 대피요령 홍보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홍보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보급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삼천포도서관, 지역 1호 '치매극복 선도도서관' 지정



사천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센터장 유영권)가 지난 8월 5일 경상남도교육청 삼천포도서관을 '치매극복 선도도서관'으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치매극복 선도도서관은 지역사회의 치매 정보 허브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치매 인식개선과 지속적인 치매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 문의 : 사천시치매안심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055-831-5872)

두랑저수지변 생태교란식물 가시박 제거



자연보호사천시협의회(회장 박주태)가 8월 7일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도 사천읍 두랑 저수지 주변에서 생태교란식물 가시박 제거활동 및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박주태 자연보호협의회 회장은 "생태교란 식물 제거활동을 통해 참여 분위기 조성과 자연생태계 보전에 대한 인식전환 확산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사천읍방위협의회친목회, 사천읍대에 냉장고 기탁



사천읍방위협의회친목회(회장 박재현)가 8월 18일 사천읍대(읍대장 정민석)에 예비군 훈련시 음용수를 시원하게 보관할 냉장고가 없어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최신형 냉장고를 기탁했다. 이는 지난 7월에 있었던 정기회의시 사천읍대 지원방안을 논의하던 중 제안된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박재현 회장은 "무더운 여름 훈련에 나서는 예비군들에게 시원한 물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농업인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여름철 영농현장 교육



사천시농업기술센터가 지난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19개소 총 500여 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여름철 영농현장 교육'을 실시했다. 지역 농업인들에게 교육을 통해 농업 환경 변화에 따른 현장 당면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작물 생육단계에 적합한 핵심기술 교육,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업인의 행동요령 등을 전달했다. 이번 교육은 식량, 원예, 농업시책 3개 과정, 2개 반으로 구성되었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요령 교육도 실시했다.

SACHEON NEWS

의회 소식

이삼수 사천시의회의장, 제8대 후반기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추대



경남 사천시의회 이삼수 의장이 제8대 후반기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에 추대됐다.

12일 사천시에서 개최된 '제222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제8대 후반기 회장 선출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참석한 시군의의장의 전원 추대로 이삼수 사천시의회의 의장이 회장이 됐다.

또한 부회장에 김해시의회 송유인 의장, 합천군의회 배몽희 의장을 각각 추대하고, 감사에는 함양군의회 황태진 의장을 호선했다.

이삼수 신임회장은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경남 발전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겠다. 무엇보다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정례회에서는 국토균형 발전과 사천 항공MRO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반대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결의문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회의장 등 관련기관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공동결의문 채택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삼수 사천시의회 의장)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반대' 대정부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8월 12일 사천에서 제222회 정례회를 열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국가의 예산을 낭비하며, 항공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을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개정해 인천공항에서 항공MRO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또 "정부는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항공제조업체가 밀집되어 입지 조건이 우수한 사천시를 항공MRO 산업단지로 지정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주)(KAI)를 항공정비 사업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며 "KAI는 항공정비전문업체 KAEMS를 설립한 후 항공정비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경남도와 사천시도 1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일자리 쏠림과 비대칭 현상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인천지역 항공MRO 정비사업 시행은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일 뿐 아니라, 항공MRO 전문업체인 KAEMS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사천시와 인천시 양 지역 항공MRO 사업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늘 ‘처음처럼’ 초심 잃지 않고 한결같고 변함없이 나아갈 것”

김영애 _ 사천시의회 의원

사천시의회 김영애(무소속)의원. 시원한 외모만큼이나 성격도 화끈하다. 비례대표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한 뒤 우여곡절 많은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젊음을 무기로 누구보다 의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만큼 의원으로서의 임무도 역할도 충실히 해낸다는 의미이다. 과연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어떤 생각으로 의정활동과 사천을 바라보고 있을까?

 첫 기초의원은 민주당이었다. 이제 무소속 의원으로 활동 중인데, 무슨 일이 있었나.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지난 일이고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저에게는 전화위복의 기회라 생각하고 긍정적

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비례의원시절부터 정말 당을 위해 최선을 다해 묵묵히 일만 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너무 나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지금껏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저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한 거짓된 말들로 인해 그동안의 제 삶이 한순



간에 무너지기도 했다.

하지만 1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금, 아무런 미련도 남지 않는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당을 위해 정말 아낌없이 희생하며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기에 후회는 없다. 모든 게 내 탓이란 생각으로 맘 편하게 오로지 의정활동에만 전념하며 살고 싶다. 무소속 의원인 지금이 더 행복하다.

당을 떠나 무소속 의원으로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간다고 했다. 각오는.

무소속 의원이 되고나니 시간적 여유도 많아지고,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어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제가 두려운 것은 오로지 시민뿐이고 또한 제가 믿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시민들의 올바른 마음과 현명한 판단뿐이다. 또한 현실을 탓하지 않고, 부당한 것에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의원으로 살아왔듯, 앞으로도 그렇게 의정활동에만 전념하겠다. 불의에 맞서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고목이 될 수 있게 시민 모두가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천시의회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눠볼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게 있나

사천시의회 전반기는 의원 상호간에 존중과 배려가 그나마 있어서 별다른 의견 대립 없이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후반기는 원 구성 과정에서는 서로 존중과 배려의 정신은 사라지고, 자신의 영욕을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된 일부 의원들을 보면서 회의력을 느꼈고 불신과 앙금만이 남아 있어 안타깝다. 솔직히 이번 8대 사천시의회 의원님들은 너무 진실성 없는 상호간의 소통이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한다. 경쟁의식 보다는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배

려하며 동료의식으로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이 우선이 돼야 한다. 앞으로 후반기 의회가 원만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현명하신 분들이기에 이 또한 잘 극복하면서 의원 서로 간에 관계 개선이 우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의회는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주된 의무이다. 이 부분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나

지난 7대의원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8대 의회는 집행기관과는 정책적·행정적 문제로 크게 대립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의원 개인적 의정활동으로 5분자유발언과 시정 질문의 횟수는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의원으로서의 역할로 보면 집행기관에 의회의 견제기능을 결코 소홀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시민이 뽑아준 의원으로서, 시민을 위해 크고 작은 정책제안과 민원제기를 했을 때, 행정에서는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로 늘 함께 고민하고 풀어 나가고 있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시민들의 고충을 들어주기 위해 집행기관과 의회가 한마음이 되어 시민들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

김영애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처음처럼'이다. 의정활동뿐 아니라 삶 자체에 대해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변함없이 꾸준한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 와인처럼 고급스럽지 않고, 위스키처럼 독하지는 않지만 늘 한결같고 서민적인 소주처럼 변함없는 사람이 되고 싶다.

“시민지킴이 역할 ‘톡톡’... 안전한 사천 만들기 앞장”

“책자에 실릴 정도로 거창한 일을 한 것은 아닌데 이렇게 인터뷰까지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하는 활동들이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저는 보람을 느낍니다.”
시누이의 호스피스 봉사활동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고 주부민방위기동대 생활을 시작한지 15년. 그 동안 신연자 회장이 시민들과 호흡하며 지낸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꽃을 피워보았다.

신연자 주부민방위기동대연합회장

주부민방위기동대 소개와 주요 활동은?

주부민방위기동대는 2008년부터 구성 운영되고 있는 지원민방위대 조직으로서 14개 읍·면·동에서 약 150여 명의 대원이 각종 생활밀착형 민방위 활동과 재난, 재해 예방 활동을 하며 지역의 안전지킴이로 참여하고 있다.

2018년 1월 회장으로 취임하여 임기 2년을 마친 후 2020년 1월 재추대 되어 올해는 지역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소화기 사용방법 등을 가르쳐주는 ‘찾아가는 민방위 교육’을 역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올해 7월 제10회 경남 민방위 실기 경진대회에서 사천시 최초로 종합 우승을 차지하여 경남 대표로 참가하는 10월 전국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경남도 최초로 상위입상을 노려보겠다.

주부민방위기동대 활동을 하며 느끼는 자부심은?

회장직을 역임하면서 여성 그리고 만65세 이하라는 나이 제한 때문에 회원 수가 점차 감소되고 재해현장에서 체력적인 문제 그리고 재난·재해대비 훈련 시 시민들이 통제에 잘 따라주지 않음에 아쉬움을 느낀다.

각종재난으로부터 나 자신 나아가 내 이웃 내 가족을 위해 좀 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당부한다.

또한, 심폐소생술, 환자 응급조치 훈련으로 단련된 회원들이 어떠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하여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시민들의 안전지킴이로 거듭나는 모습을 지켜볼 때 회장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

봉사에 대해 생각하는 참의미를 이야기 해 주셨으면?

약15년 동안의 봉사활동을 통해 참된 행복의 의미를 찾고 자신을 낮추며 타인의 얘기에 귀 기울이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안아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김에 감사함을 느낀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봉사에 참여하여 함께 땀 흘리고 사랑을 실천하며 항상 '사랑 나눔'을 할 수 있는 따뜻한 사천을 기대해 본다.

최근에는 기상이변에 따른 각종 재해, 재난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향후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더욱 안전한 사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신연자 회장의 모습에서 든든한 동반자와 함께하고 있는 행복이 밀려왔다.

늘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신연자 회장과 주부민방위기동대의 모습에 박수를 보내며 조금이나마 힘을 낼 수 있게 그들의 발걸음을 응원해 본다.



“시민들과 상공인들이 희망을 잃지 말고 미래를 위해 전진했으면”

1954년에 설립된 사천상공회의소는 지역 상공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 국가부강에 당당히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사회 풍토 조성 및 함께 지방화 시대 사천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이다. 사천시를 비롯해 남해·하동군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으며 KAI를 비롯한 항공제조업체와 대·중소기업, 소상공인 단체를 회원으로 하고 있는 이곳의 정기현 사천상공회의소 회장을 찾아 지역 경제발전과 지역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정기현 사천상공회의소 회장

▶ 사천상공회의소의 주요 사업은?

사천상공회의소의 주요사업으로는 △지역현안 및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사업’ 및 ‘기업·근로자 종합상담센터’ 운영 △일자리 지원 사업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사업’과 ‘채용알선’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관계증명서 발급’ △국가기술 자격검정 시행 △건강한 노사 문화정착을 위한 ‘모범근로자 표창’과 ‘근로자 문화·체육행사’ △소상공 등에 정부 정책자금 안내 등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역의 화두인 ‘인천 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촉구 및 ‘대한민국 제2관문공항 남중권 유치’ 활동을 하고 있다.



▶ 지난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 발의되었다. 사천MRO 사업이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는데 향후 대책이나 대응방안이 있다면.

항공기정비업(MRO, 정비·수리·분해조립)은 기술 인력 육성, 인건비 등으로 인해 아무나 할 수 없으며, 함부로 접근해서도 안 된다.

정부, 경상남도, 사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제 막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항공MRO 사업이 사천과 인천으로 분산된다면 국가정책 사업에 대한 중복 투자로 인한 혈세낭비, 지자체간 갈등과 혼란, 국제경쟁력 약화로 항공MRO의 실패는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

이에 사천상공회의소는 진주 등 인근 상공회의소와 연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작성해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부산·울산상공회의소, 경남지역 및 남중권 상공회의소 등 각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결의문을 채택해 건의할 계획이다.

▶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해법이 있다면.

현재 인천국제공항은 항공수요 포화상태로 앞으로 진행될 대한민국 제2관문항의 위치 선정은 지역적 이해와 정치적 득실을 뛰어넘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살펴볼 때 국가 균형발전, 접근성, 사업비, 확장성 등을 고려한 공항입지분석에서 대한민국의 남중권 중 사천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이에 근거해 사천상공회의소는 지난 2월 '대한민국 제2관문공항 남중권 유치'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에 건의했고, 앞으로도 국제공항 유치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지난 2018년 연임에 성공했는데, 첫 번째 임기까지 포함하면 회장을 맡은 지 5년이 넘었다. 5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상공회의소 회장은 영광스럽지만 무거운 책임도 짊어져야 하는 자리다. 임기 동안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중 2017년 '사천항공MRO 범시민유치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KAI가 항공MRO 사업자로 지정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반대로 잠시나마 사천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지역의 대표산업으로 주목받았던 SPP조선과 중소조선기자재 업체의 몰락이 가장 아쉬움으로 남는다.

▶ 끝으로 사천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과 상공인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상공회의소가 명실상부한 사천지역 최고의 종합경제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항공 정비(MRO)산업은 사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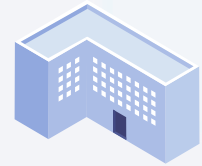
사천 항공MRO 선정 개요

- 2014. 12 : 항공정비사업(MRO) MOU 체결[경남도, 사천시, KAI]
- 2017. 12 : 항공 MRO사업자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선정(국토부)
 - KAI의 기술력과 사천시의 사업부지 저리임대 등 MRO 사업기반 충분
 - 항공우주산업단지와 항공제조업체 밀집되어 있어 입지조건 우수
 - 국내 항공 생산액 80%, 항공업체 70%, 종사자수 66% 경남 소재 (사천 53개 업체 10,000여명 종사)
 - 경남 서부지역이 MRO중심지로 성장해 국가균형발전 촉매제



사업지 선정에 따른 추진상황

- 위 치 : 사천시 사천읍 용당리 일원(A = 311,880㎡)
- 사업비 : 4,229억원 (도비·시비 1,500억원, KAI 2,729억원)
 - ① KAI : 항공MRO전문업체 KAEMS 설립(2018. 3.), 항공기 초도정비(2019. 2.)
 - ② 사천시 : 항공정비(MRO) 산단 조성(311,880㎡, 2017년~2023년)
 - 1~2단계(2017년~2021년, 1000억원) : 149,628㎡(1단계 완료, 2단계 공정 35%)
 - 3단계(2019년~2023년, 500억원) : 162,252㎡



참고사항

- 청주시+아시아나항공 : 아시아나항공 구조조정 중으로 투자유치비용 부담, 사업 포기
- 인천시+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경제 산업정보테크노파크(미 신청)
 - MRO 전문 민간사업자가 없으므로 미 신청, 법 개정 주장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 개정안 발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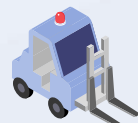
발의연월일	발의자	주요내용
2020. 6. 19.	윤관석, 유동수, 박찬대, 허영, 신동근, 이성만, 김교홍, 강준현, 박홍근, 조웅천, 정일영, 송영길 (12명, 더불어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접 항공기 취급업 및 항공기 정비업 수행 ●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위탁사업 ● 인천국제공항 주변 지역 개발사업
2020. 8. 5.	배준영, 김병욱, 김정재, 이용, 정운천, 김석기, 이명수, 김선교, 박대수, 배현진, 유상범 (11인, 미래통합당)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시 문제점

- 개정 법률안 통과 시 국토 균형발전 저해
- 사천 항공MRO 사업 위축 및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초래
- 항공기 정비업 직접 취급 시 WTO 보조금 문제 발생 가능성
 - ※ 공항운영자 항공기 정비업 직영사례 없음
- 지방 항공관련 대학(한국폴리텍대학, 경상대학교 등) 존폐 위기
- 정부는 항공기 정비업 부분은 민간영역으로 직접 항공기 취급 반대
- 항공MRO 정비기업 경쟁력 약화와 숙련 근로자 유출, 지자체간 갈등 유발
- 사천 항공산업 기반 붕괴 우려

법률안 개정에 따른 추진사항 및 대응계획

- 그간 추진상황
 - 상공회의소 대정부 건의문 제출(사천, 진주, 통영, 거제 4개 시 : 2020. 7. 3.
 - 경상남도의회 대정부 건의안 의결 : 2020. 7. 23.
 -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주재 항공MRO 긴급 간담회 : 2020. 7. 28.
 - 인천공항 항공MRO 추진에 대한 경상남도 입장 건의(국토부) : 2020. 7. 30.
 - 남해안남중권 발전협의회 법률개정 반대 공동 결의문 발송 : 2020. 8. 10.
 - 경상남도 시군의장협의회 공동 건의문 채택 : 2020. 8. 12.
 - 사천시, 사천상공회의소, 서경방송 공동주최 항공MRO 토론회 개최 : 2020. 8. 18.
 - 하영제 국회의원 주최 항공MRO 토론회 개최 : 2020. 8. 24.
- 향후 대응계획
 -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 2020. 9.
 -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전 도민 서명운동 전개 : 2020. 9.
 - 경남 시장·군수 협의회 건의문 채택 : 2020. 9.
 - 전 시민 쉼기대회 개최 : 2020. 9. ~ 10.





영래밀면



영래밀면♡ 아껴두었던 맛집입니다. 전통시장 완사식당 맞은편에 위치해 있어요. 차는 공용주차장에 주차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물밀면·비빔밀면을 먼저 시키고 육전·만두도 시켰답니다. 밀반찬으로 나오는 열무김치가 맛있어요. 비빔밀면도 자극적이지 않고 건강한 맛이 느껴집니다. 물밀면에서는 한약재 향이 느껴져서 메뉴판을 보았더니 역시 육수에 몸에 좋은 재료가 들어갔군요. 독특한 맛인데 나쁘진 않았어요. 냉면보다는 면이가늘고 부드러워요. 겨자를 넣어서 드셔도 좋을 듯합니다.

스쳐 지나가기만 했는데 진짜 먹어볼 걸 그랬어요. 다시 한번 가고 싶은 영래밀면입니다. 다음 방문은 완사시장도 구경할 겸 1일, 6일에 맞춰서 와봐요.

완사전통시장 맛집투어 1탄

입이 즐거워지는 숨겨진 맛집 여행



참지대루 한우&돈육

진양호 캐러비안 스파 입구 사거리에 위치한 <참·지대루 한우 & 돈육>입니다. 상호도 톡톡~ 튼튼합니다. '지대루'는 경상도 사투리로 '제대로'라는 뜻이에요. 찾아가시는 길은 사천시 곤명면 연평길 16.

점심 식사로 시그니처 메뉴인 육회비빔밥을 시켰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해서 큰 기대는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온 음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양도 푸짐하고 비주얼이 끝내줍니다. 완사 지역이 고기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육회와 비빔밥이 유명해서 전국적으로 소문이 자자했다네요. 그때 이후로 삼천포에서 찾아오기에 조금 멀긴 하지만 고기가 맛있어서 가족들과 자주 찾게 되는 곳입니다. 메뉴가 다양합니다. 가격이 정말 착하답니다.

그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메뉴는 돼지 한 마리(500g)입니다. 삼겹살, 목살, 가브리살, 향정살이 나와요. 구성이 딱 좋아요. 맛깔스러운 상차림과 참숯에 지글지글 구워서 쌈 싸 먹는 고기 맛은 불 향도 나고 아들아들하니 너무 맛있어요. 반찬으로 나오는 돼지껍질도 별미예요. 고기 먹고 나서 애정하는 고추장 불고기도 시켜서 먹습니다. 고기 먹고 또 고기 먹고, 안 먹고 가면 서운해요. 단품 식사로도 많이 시켜드시는 인기 메뉴예요. 고기가 신선해서 양념을 해도 맛있어요. 비가 오거나 쌀쌀한 날에는 소고기국밥이 짱입니다. 한우로 만들어서 국물도 진합니다. 국밥은 포장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곤양식당



3



곤양식당 입구에 커다란 숯이 놓여져 있었어요. 삼복더위에 열기가 더 후끈후끈했어요. 식당내부는 생각보다 넓어요. 휴일인데도 손님이 제법 계셨어요. 저희는 피순대 1인분과 돼지국밥과 모듬국밥을 시켰습니다. 먼저 깨소금이 뿌려진 순대가 나왔습니다. 피순대는 자그마하니 딱 한 입 사이즈여서 좋았어요. 다음 국밥이 나왔는데요. 비주얼이 일단 굵~ 보글보글 뚝배기에 부추와 고추가루의 색깔이 식욕을 제대로 자극합니다. 숟가락으로 뒤집어 보니 고기가 푸짐하게 들어있었어요.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완사전통시장 돼지국밥입니다. 비오는 날, 추운 날이면 생각날 음식인 것 같아요. 깔끔한 맛이 일품이네요. 또 먹으러 와야겠어요~~~~



100년이 넘는 오랜 전통을 가진 완사전통시장은 진주시, 하동군, 산청군을 연결하는 교통요충지로서 물동교류가 활발합니다. 왕새시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제법 큰 규모의 시장으로서 꽤나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완사전통시장이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은 2015년으로 노후 천막 교체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완료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송미선

제5기 사천시 SNS서포터즈



4

와인갤러리

여름이면 시원하고 겨울이면 따뜻한 곳 바로 사천시 핫플레이스 와인갤러리입니다. 오늘같이 무더운 날에는 방문하기 좋은 최고의 장소지요. 안쪽에는 머무르시다 갈 수 있게 테이블도 준비가 되어있어요. 벽면에 전시된 작품들 구경하시면서 ♥포토존을 지나서 와인저장고 끝까지 다녀오세요. 와인시음도 해보시고 간단한 음료도 주문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사천시 특산물 다래와인입니다. 저는 7004 스위트한 맛이 좋더라구요^^ 이용권으로 사천바다케이볼까 탐승 할인도 가능하니 놓치지마세요~~ 위치는 사천시 곤명면 경서대로 3552 와인갤러리. 너무 좋아요. 봄에 이어 여름에 만나본 사천시 곤명면 투어 어떠셨나요? 가을편도 기대해주세요^^




 꽃-바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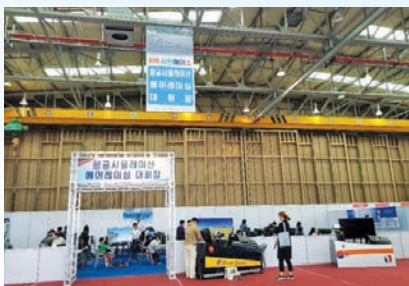
2020 공군과 함께하는 사천에어쇼



코로나19 너무 무섭다.

남부 유일의 에어쇼, 전국 최고의 에어쇼로 자리매김한 사천에어쇼도 토네이도보다 더 무섭게 몰아치지는 코로나19의 위력에 무릎을 꿇었다. 공군과 함께하는 사천에어쇼는 전국에서 30만명 이상이 찾을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는 사천의 대표적인 축제다.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개최예정이던 올해 축제 역시 30만명을 거뜬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더구나 코로나19 극복 및 항공 산업 재도약을 성원하기 위해 ‘창공을 넘어 우주로! 강한 공군, 강한 사천!’이라는 슬로건으로 120여개 프로그램을 마련하면서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WHO의 팬데믹 선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감염력이 더욱 강력해진 변종 바이러스의 발현, 보건당국의 가을철 대유행 가능성 경고 등이 이어져 축제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공군과 함께하는 사천에어쇼는 2022년 10월에 열린다.

사천시와 공군, KAI 등 주최 기관들은 완벽한 방역대책을 통해 사천에어쇼를 개최하는 것으로 준비했다. 그러나, 일일 관람객이 전국에서 수만 명에 달하는 점, 행사 특성상 다수의 밀집 현상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점, 방역의 통제범위가 미치지 못하는 위험요소가 상존하다는 점이 우려됐다. 특히, 단 한 명의 확진자 또는 미인지 접촉자가 방문할 경우 다수 인원에게 대한 역학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축제를 연기하는 것만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비책이라고 판단했다. 정부의 방침에 부합하고 시민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다고...





내년에 만나요

2020년 사천시농업한마당

아쉬움 뒤로 하고 '내년 기약'



한 해 동안 고생한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모든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풍요로운 추수의 기쁨을 나누고자 마련된 사천시 농업한마당축제.

올해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사천시청 노을광장 일원에서 제13회 사천시농업한마당축제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시민과 방문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취소됐다. 농업한마당축제는 특장상 시음·시식·체험 등 대면접촉 프로그램이 많아 위험부담이 커 불가피하게 취소하게 된 것. 축제 취소로 아쉬움이 커졌지만, 지난 축제의 이모저모를 둘러보면서 더욱 더 풍성하고 발전된 축제로 찾아올 내년을 기다려보면 어떨까요.



단종태실지 ③

세종대왕태실지와

앞선 시간에는 단종태실의 조성과 훼손 그리고 일제에 의한 훼손, 문화재로 지정되는 과정 등에 대해 간략히 살펴 보았다.

이번 시간에는 일부 연구자와 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리 시 소재 단종태실 진위 논란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사실 단종태실이 경상남도 기념물 제31호로 지정될 당시에는 조선왕조실록에 현 위치인 곤명면 은사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기록돼 있어 별다른 논란이 없었다. 하지만 이후 1996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한 서삼릉태실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쓰여진 1999년 사단법인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에서 발간한 『조선의 태실』이 발간되면서 우리 사천에 있는 단종태실은 인성대군의 태실이 잘못 알려진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 책과 함께 우리시 단종태실이 가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근거로써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일제에 의해 훼손된 후 서삼릉으로 이안돼 있는 54기의 태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성대군의 지석이 확인됐는데 지석 뒤편에 곤명면에서 옮겨왔다고 새겨져 있다는 것이다.

둘째, 1928년부터 일제 전국 태실을 이안하면서 기록한 『태봉(胎封)』이라는 출장복면서 기록에 단종태실의 태향아리와 지석을 묻거나 처리한 기록이 없고, 1930년 서삼릉 태실 관련 유물을 묻은 기록에는 인성대군태실이 곤명면

은사리에서 가져왔다고 적혀있는 것이다.

물론 위 두가지 주장은 팩트(사실)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단종태실과 관련된 여러 사항 중 일부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주장과 반대되는 근거 즉 우리시 곤명면에 있는 단종이 진짜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더 확실한 팩트가 있다.

이에 다음 시간에는 우리시 단종태실을 부정하는 주장과 반대되는 근거와 주장 등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다.



(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
『조선의 태실』(1999년 발간)



우리 문화유산 둘러보기

감모재

곤명면 작팔마을 감모재(感慕齋)는 함안조씨 충의공파(忠毅公派) 후손이 250여 년을 세거해 오면서 충의공파 22대손인 감모재 조세봉(趙世鳳·1687~1767) 선생을 기리고 조상을 받들며 집안 자녀를 훈육하던 공간이다.

건물은 마을 안쪽 양지바른 자리에 전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으로 토기와를 얹은 양식이다. 내부는 방이나 마루도 없이 제사를 모실 수 있도록 넓게 만들어졌다. 제기와 병풍 등의 기물이 있고 왼쪽 벽에는 제사를 모시는 선조의 휘(諱)가 표시돼 있어 이곳이 제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사를 준비하는 방은 건물 왼쪽에 별도로 만들어져 있다. 대문은 솟을대문이고 좌우로 창고가 있어 청소나 제초 등의 도구를 보관하고 있는 정도다. 처음에는 감모재 선생의 종가를 재실로 활용해 오다가, 나중에 후손이 번창하고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지자 덕래 씨와 종래, 향래 씨 등이 문중 종원들을 설득해 지금의 자리에 목조 건물을 지어 감모재라 했다. 그러다가 2003년의 태풍 ‘매미’ 때 발생한 산사태로 매몰되자 명래 씨 등 종원들이 성금을 보태 2009년 8월 지금의 모습으



로 중건했다.

감모재 공은 생육신(生六臣)인 어계(漁溪) 조려(趙旅) 선생의 후손으로 충의공(忠毅公) 대소현(大笑軒) 조종도(趙宗道·남명선생의 제자이자 생질서)의 6세 손으로 재학(才學)에 뛰어나고 독서를 좋아했으며 성품은 결백하고 강직했다. 숙종 13년 함안군 군북면 하림마을에서 태어났는데, 당시 극심했던 왜구의 노략질이 여기까지 영향을 미쳐 아버지 석천(碩天) 공이 화를 당했다. 그러자 스무여덟살인 어머니 남평 문 씨는 어린 아들만 안고 난을 피해 전전하다 서포면 자혜마을에서 터전을 잡았다.



어렵게 살아가던 감모재 공은 나중에 배를 이용해 화물을 수송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 사업이 커지자 인근 축동면 가산 창에서 서울로 운송하는 세곡(稅穀) 수송사업에 관여해 큰돈을 모았다. 어려서부터 자신을 키워 준 어머니의 사랑을 짐작해서인지 효성도 지극했다. 어머니가 몸져눅자 '내가 어머니의 병을 대신하겠다'며 하늘에 빌기도 하고, 대변을 살펴 병세에 따라 약을 드리며 지극히 간호했다고 한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예를 다해서 장례를 치르고 3년간 시묘살이를 했는데 슬퍼하며 흘린 눈물이 말라 나중에는 피를 흘렸다고 한다. 감모재라는 호(號)도 '아버이를 섬기는데 감동(感動)으로 하고 사모(思慕)하는 마음을 잊지 않겠다'며 스스로 지었다고 한다. 나중에 마을 인근의 조이철(曹理喆), 권익룡(權翼龍), 정우진(鄭邦鎭) 등 100여 명의 유림이 연명으로 효행을 포상해 달라며 관아에 장계를 올렸으나 이뤄지지는 않았다.



나중에 선박 사고가 발생하자 선생의 손자인 정이(廷毅) 공이 가산을 모두 처분하고 서포면 자혜마을에서 곤명면 작팔마을로 옮겨왔다. 덕천강 동쪽인 이곳은 산도 높지 않고 물이 깊지 않으면서도 경치가 아름다워 사람이 살만하다고 여겼다. 마을 이름은 많은 글을 짓는 글방과 같은 형국이란 작문팔수(作文八首)에서 취했다는 설이 있고 신선이 강림(降臨)했다는 강선곡(降仙谷), 배움터가 있었다는 원학당(元學堂)골, 벼루의 연석(硯石)골, 벼루에 먹을 가는 연수(硯水)골, 붓(筆)골, 먹(墨)골, 장지(張紙)골, 글 읽은 독(讀)골 등 8골이 있다고 해서 붙였다는 설도 있다. 풍수지리를 공부한 이 마을 필래 씨는 "마을에는 학문과 관련된 지명이 많아 조선 시대 때 풍수학에 밝은 무학대사가 은사마을에 세종대왕의 태실지를 잡아놓고 작팔마을을 '세종대왕의 공부방'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법조계나 학계, 교육계 등으로 진출한 인물이 많다. 함안조씨 감모재 중중에서 좌장은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 희래(79) 씨이지만 중중 일은 수년 전부터 현길(31대 손) 씨가 맡고 있다.

현길 씨는 "그동안 선조에 대한 연구나 공부가 이어지지 못해 안타깝다"며 "청빈하고 강직한 감모재 할아버지의 유업을 잇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완용
사천시 곤명면



어때요? 항공산업 23탄



관내 동향

● 사천시-한국항공우주산업, 지역경제 활성화 협약식

- 사천시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30일 양 기관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교류 및 업무협력 협약식을 가짐
- 본 협약을 통해 사천시는 KAI 직원·가족 및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관광 상품 및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
- 협력관계 증진 및 지속 가능한 협동 사업을 발굴·추진하여, 양 기관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KAI, B787 날개 구조물 단종 시까지 독점 공급

-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일본 수바루(Subaru)사와 '보잉 B787' 날개구조물 주요 부품에 대한 추가 공급 계약을 체결
- KAI는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날개구조물 부품을 납품했으며, 이번 계약을 통해 2022년부터 항공기 단종 시까지 납품 계약을 연장
- 현재 환율을 적용할 시 2038년까지의 매출 규모는 약 9000억원을 거둘 것으로 예상
- 이번 계약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 제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

보잉 B787기



- 보잉이 개발에 착수한 신형여객기
- 개발 명칭 : 보잉 7E7 (E: efficiency)
- 애칭 : 드림라이
- 객석 수 : 330석
- 연료 효율이 기존 여객기에 비해 20% 가량 높음



도내 동향

● 경남도,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MRO 사업' 추진 반대

- 도는 28일 박종원 경제부지사 주재로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에서 경남 항공MRO 기업 간담회를 가짐



- 경남도는 최근 항공정비(MRO) 사업과 관련해, 사천지역 MRO사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인천국제 공항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 국내 항공MRO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로,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
- 해당 법을 개정하는 것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설립 목적에도 맞지 않고, **MRO산업 중북투자 및 국가균형발전에**도 어긋나므로 **개정안에 반대**

● **경남 항공우주산업에 1조5000억 투자한다**

- 경남도는 지역 주력산업인 항공우주산업 성장과 세계 항공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청사진을 마련
- 도는 **'경남 항공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나설 계획
- **'2020 글로벌 항공우주산업 스마트 제조 거점 실현'**을 비전으로 삼아, △항공기업 세계 경쟁력 기반 구축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완제기 수출 활성화와 항공정비(MRO) 국제 허브화 △개인용 비행체 (PAV)·도심항공운송수단(UAM) 등 미래형 비행체 개발 기반 구축 △항공우주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등 **4개 분야, 68개 추진과제**를 설정
- 10년간 총 투자예상액 **1조4천930억 원**을 투입할 계획
- 도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 생산유발 **13조9천억 원**, 부가가치유발 **3조9천억 원**, 고용창출 **4만1천 여명**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

국내 동향

●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완전 해제**

- 28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완전히 해제됨**
- 기존 한-미 미사일지침은 한국이 우주발사체에 액체 연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
- 개정 이후, 기존의 **액체 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혼합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제약 없이 개발·생산·보유 가능
- 이번 조치로 민간 기업과 개인이 21세기 성장 동력인 **우주 산업**에 뛰어 들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

● **반세기의 육군 UH-1H 헬기 퇴역... '수리온'이 대체**

- 52년간 대한민국 하늘을 지켜온 육군항공의 **UH-1H 헬기**가 퇴역하고 **'수리온' 헬기**가 뒤를 이음
- 그간 UH-1H 헬기의 총비행 비행시간은 79만 2천 시간, 비행거리는 1억 4천 600만km로 지구 둘레를 3천 649바퀴를 돈 것과 같음



- 퇴역한 UH-1H 헬기를 '수리온' 헬기가 대체하며, 육군은 '수리온'을 기반으로 개발한 '메디온' 헬기도 작전 배치
- UH-1H 헬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 앞으로 육군은 '수리온'과 함께 더욱 강해진 항공작전 수행 능력을 발휘할 것

● 최초 국산 비행기 부활호, 국가과학기술자료 등록

- 현재 공군사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부활호**가 과학·기술, 역사, 교육 등 3가지 측면에서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 중요 과학기술자료**로 등록됨
- **부활호**는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보존처리, 교육자료·콘텐츠 제작, 전시** 등에 활용될 예정
- 개량·복원한 부활호 2대 중 1대는 사천시청 앞 노을광장에 전시 하고 있음.

해외 동향

● 항공사들의 눈물겨운 고객 모시기, 코로나 감염 시 지원

- 코로나19로 전 세계 항공업계가 어려움에 처하면서, 항공사들이 고객 모시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음
- 중동 최대항공사인 **에미레이트항공**은 이용 승객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치료비와 호텔 격리비용**, 더 나아가 사망 시 **장례비용**까지 모두 제공하며 병원비의 경우 **최대 2억원** 까지 보장
- 독일 항공사인 **루프트한자**는 '신속 코로나19 검사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에 제공
- 홍콩 항공사인 **케세이 퍼시픽**은 모든 항공권에 대해 1년간 수수료 없이 무제한 스케줄을 변경 가능

● IATA, 2024년에 코로나19 이전 항공 교통량 회복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여파로 급감한 **항공 교통량이 2024년에**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
- IATA는 유럽 지역에서는 거의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여객기 승객 수도 사상 최저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 IATA는 고용 불안과 실직자 증가,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여행을 꺼리고 있다며 앞으로 몇 년간 **화물 운송이 항공업계의 주요 수익원이 될 것으로** 예상

길 이름 따라 떠나는 사천 이야기

30번째 이야기 신덕(新德)길

사천시에는 많은 도로명이 있습니다.
각각의 도로명마다 역사적 의미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용현면 덕곡마을의 옛 이름으로 물이 좋고 농토가 많아 사람살기에 좋은 곳이라 하여 '신덕'이란 이름이 붙여졌으며 '덕곡'이라는 명칭은 신덕의 큰덕(德)자와 백천골의 긴 계곡 아래에 있다 하여 골곡(谷)자를 합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일제강점기에는 영화주식회사의 김기태, 강위수라는 사람의 소작료 수납창고가 2동이나 있을 정도로 농토가 많은 부자동네였다고 한다.

전주이씨가 대성(大姓)을 이루고 있으나 입향한지는 약 150년 전이고 김해김씨가 이보다 100여년 앞서 입향하였다고 전한다.

현재 마을 안팎에 몇 개의 고인돌이 있는데 어르신들의 증언에 따르면 1976년도 경지정리 시에 갯돌(바다 돌)을 이용하여 만든 석관묘도 10여개가 발견되었다 하는데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하였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한다. (사천지명지 참조)

도로명은 이러한 역사성의 의미를 담아 “신덕길”로 하였다.

사천 이야기를 담은 사자성어

화수지회(花樹之會)

“친족간의 화목과 우애를 다지다”

화수지회(花樹之會)는 일가 종족들이 “꽃나무에서의 모임”을 가짐이다. 당나라 때 위(韋)씨의 종족 중 “원외랑(員外郎)”이라는 벼슬을 지낸 위원의(韋員外)는 매월 종족들과 꽃나무 아래에 모여서 종족의 돈독한 정과 우애를 다졌다. 이를 두고 위가화수(韋家花樹)라고도 한다. 위원의(韋員外)는 종회법(宗會法)을 만들어 어떻게든 종족이 화목하게 지내려고 노력하였다.

안타깝게도 그 종회법은 없어졌고, 위원의(韋員外)의 이름은 장(莊)이라고 하나 확실하지도 않다. 당나라 잠삼(岑參)이라는 시인이 위가화수(韋家花樹)의 모임을 보고 칭송하여 읊었던 <위원의가화수가(韋員外家花樹歌)>라는 노래만 전하였다. 때문에 북송시대 철학자 정이천은 종족의 화목을 강조하면서 시인 잠삼의 노래를 애창하였고, 남송시대 주희 역시 그 전통을 이어받아 그 노래를 애창하였다.

올해의 꽃도 지난해처럼 예쁘나,

今年花似去年好

지난해의 사람은 올해 들어 늙었구나.

去年人到今年老

사람의 늙음은 꽃과 같지 않다는 것 비로소 알겠

구려, 始知人老不如花

지는 꽃도 아낄 만하니 그대는 쓸어내

지 말게나. 可惜落花君莫掃

그대의 집안 형제 훌륭하니, 君家兄弟不可當
경의 반열도 있고 어사도 있고 상서랑도 있다.

列卿御史尚書郎

조회에서 돌아오면 꽃 아래에 늘 객이 모이고,

朝回花底恒會客

꽃이 옥항아리에 떨어지니 봄 술이 향기롭구나.

花撲玉缸春酒香

후세에 친족 간의 모임을 화수회(花樹會)라 부르게 된 것은 바로 <위원의가화수가(韋員外家花樹歌)>에서 유래하였다.

사천시 곤명면에는 산음재(山陰齋)라는 창녕 조(曹)씨들의 재실이 있다. 근세의 유학자 하동근이라는 분이 지은 산음재 기문을 읽다가 문득 “화수지회(花樹之會)”라는 고사의 언급에 눈이 멈추었다. 그 기문에서의 언급은,

“위(韋)씨의 화수지회(花樹之會)가 어찌 오로지 옛날에만 아름다웠겠는가. …… 오늘날 조(曹)씨의 화수회(花樹會)도 옛날 위(韋)씨의 화수회(花樹會)와 함께 세상에 짝이 될 만한 아름다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종족간의 화목과 돈독한 우애가 점점 쇠퇴해지

는 오늘날에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하는 말이다.

이 갑 규(李甲圭)

한국국학진흥원 교수·한학자





시정 알림 마당



인공지능(AI) 통합돌봄사업 서비스 추진

경남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 사업 추진에 따라 동서동 거주 장애인 및 독거노인 100가구를 돌봄 대상으로 선정, 8월부터 본격적인 인공지능(AI)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 추진으로 마을에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다양한 생활 정보를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두뇌톡톡’ 퀴즈서비스와 ‘기억검사’ 게임을 통해 치매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음성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24시간 긴급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스피커를 통해 행정기관의 다양한 안내 소식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하반기 사천시평생학습센터 맞춤형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모집대상 : 사천시민 누구나(관내 소재 직장인 후순위)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시홈페이지 <http://www.sacheon.go.kr>-교육강좌)
- 접수기간 : 2020. 9. 14. (월) ~ 9. 18. (금) ※9. 14. (월) 오전 9시부터 접수시작
- 교육장소 : 사천시평생학습센터(사천읍 무산로 21) ☎055)831-2595~6
- 교육기간 : 12주 과정 (2020. 10. 5. ~ 12. 24.) / 8주 과정(2020. 11. 2. ~ 12. 24.) ※교육기간이 상이하니 접수 시 유의
- 수 강 료 : 12주 과정 3만원, 8주 과정 2만원, 재료비·교재비 별도
- 교육과정 : 23개 과목 345명, 야간교육과정
- 교육과목 : 전통민화, 커피바리스타, 영어 초급, 일본어 초급, 감성 손글씨 캘리그라피, 우리가족 머리깎기, 약초를 이용한 생활한방, 쉽게 배우는 유화, 프랑스 자수, 사진 카메라 아카데미, 수채화, 펜드로잉(여행스케치), 드론 이론 및 실습, 중국어 입문, 힐링 요가, 우쿨렐레, 포크기타, 국학기공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이라 함)이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됐다. 이 특별조치법은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 법은 과거 1978년, 1993년,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되었으나 아직까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사항과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것. 사천시의 경우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축물, 동지역의 경우 농지 및 임야만 해당되며 ‘95. 6. 30.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 적용된다.

야외활동시 진드기 조심하세요



산, 나물채취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인데요.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38~40℃),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으세요.



중기부 「코로나19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안내

- ◆ 코로나19 여파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생업 안정을 위해 500억 원(3차추경) 규모의 정책자금 지원
- ◆ 현장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8월 5일부터 대출 신청·접수

● 지원개요

- 융자규모 : 500억 원
- 지원일정 : '20. 8. 5.(수) 09:00 ~ 자금 소진시 까지
- 지원대상 : 대표자의 ①개인신용평가등급이 7등급 이하이면서 ②장애인, 여성, 청년(39세이하), 청년고용 소상공인을 중점 지원
- * 단, 1차 및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수혜자는 지원 제외

구분	세부조건(7등급 이하 +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장애인	- 대표자(공동대표 중 1인)가 장애인인 경우 - '장애인기업 확인서' 소지 - 대표자(공동대표 중 1인)가 국가유공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 상이자, 4·19혁명 부상자, 6·18자유상이자 등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자
여성	- 대표자(공동대표 중 1인)가 여성인 경우 또는 '여성기업 확인서' 소지
청년	- 대표자(공동대표 중 1인)가 청년인 경우 - 전체 상시근로자 중 50% 이상의 청년근로자를 고용했거나, 최근 1년 내 청년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유지 중인 기업

● 지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1,000만원 이내 (업체별 매출액에 따라 대출한도 상이)
- 대출금리 : 연 2.9% 고정
-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지원절차 : 신청·접수(8.5일~, 온라인) → 대출심사(온라인에서 간이심사) → 약정서 작성(방문) 및 대출실행(신청 후 3~5일 이내)
- 온라인 미활용 소상공인은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청년 인력(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 등을 통해 대리접수 가능
-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2020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 훈련개요

- 기간 : 2020. 9. 21.(월)~ 9. 23.(수) [3일간]
- 참여 : 20개 기관·단체, 시민 등 200여명

● 훈련 추진 일정

- 1일차(9.21.) 민간 다중이용 시설 대피로 점검 및 재난행동요령 교육
- 2일차(9.22.) 재난취약시설 지진·화재 대응훈련 (행동요령 교육 등)
- 3일차(9.23.) 풍수해 발생 대비 토론훈련

※ 코로나19 대응으로 현장훈련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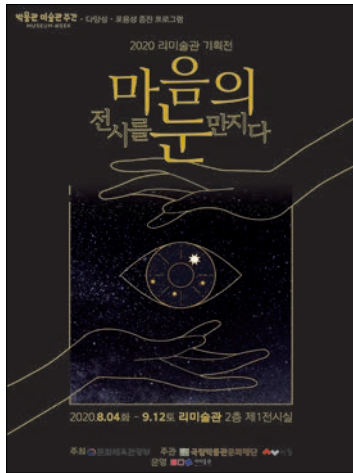
사천첨단항공우주 과학관 임시휴관 안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임시휴관합니다. 방문하시는 관람객들과 시민분들께서는 이용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휴관기간 : 2020. 8. 26. (수) ~ 상황변경시까지

● 문의처 : 055-831-3472 (사천시청 우주항공과)



사천 리미미술관, '마음의 눈-전시를 만지다' 기획展 개최

사천 리미미술관이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의 눈-전시를 만지다' 기획전을 9월 12일까지 2층 전시실에서 개최하고 있다. '마음의 눈-전시를 만지다'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주)시월이

공동 주관하는 다양성, 포용성 증진 프로그램의 하나로 리미미술관에서 다양한 삶의 형태를 인지하고 소수 그룹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 전시는 '미술관은 시각예술만 다룬다'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후각·청각·촉각을 자극하는 전시 구성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약한 시각장애인도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오감형 전시이다. 시각장애인과 함께 전시를 관람하며 그들이 느끼는 세상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고 소수 그룹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여 '틀림'이 아닌 '다름'의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존재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려 한다.



미술관 관계자는 "알리미, '우리의 이야기', 'Circle of Life', 'Seeing', 'Light Trace', '감각의 정원', '리미미술관에 도착한 봄', '달아래' 각 각의 공간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작품을 준비했으니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에 관한 문의 사항은 리미미술관(☎055-835-2015)으로 연락하거나 홈페이지, SNS를 통해 알 수 있다.





위·대장 내시경 통한 암 조기발견 중요



국내에서 발생하는 암 발병률 중 위암과 대장암은 1, 2위를 다투고 있다.

하지만 위와 대장에서 발생하는 암은 이미 진행됐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되기 전까지는 무

증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각하기 어렵고, 특히 40대 이후가 되면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통해 증상을 파악해야 한다.

● 위암과 대장암은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위암과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대장 내시경 검사는 40대 이후부터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가족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미리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현재 우리나라는 만 40세 이상 나이 대를 대상으로 2년마다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부모나 형제 등 가족 중에 위암이나 대장암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을 경우, 시기를 앞당겨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가족력과 증상, 생활습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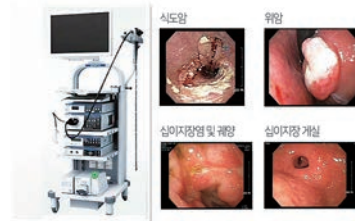
위암과 대장암은 가족력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식욕 및 체중 감소, 검은 대변이 나오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내시경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일반 내시경 검사가 부담스러운 경우라면 보호자를 동반하고 수면 내시경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현재 수면 내시경은 한 번의 수면으로 위와 대장 내시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해당 암을 예방하기 위해선 맵고 짠 음식을 섭취하지 않

아야 하고 과도한 음주도 피해야 한다. 위·대장암은 주로 올바르지 못한 생활습관으로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복통이나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등의 증상이 오랜 시간 지속될 경우에는 연령대와 상관없이 위·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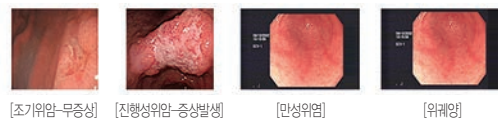


* 첨단 HD 고화질로 정확하고 확실한 진단

* 육안의 100배 이상 미세하나 조직까지 진단

- 특수파장의 색상보정효과로 위, 대장암 조기진단을 높음
- 가늘고 유연한 내시경관으로 고통경감 효과

● 조기 진단과 치료가 최선의 예방법



어떤 질병이든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빠른 진단과 발견은 육체적, 경제적 고통이 반감된다는 것. 특히 조기 진단과 치료가 최선의 예방법이자 치료법인 만큼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음으로써 위·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다.

안전한 내시경 검사를 위해선 소화기내과 전문의, 첨단 내시경 장비, 철저한 내시경 장비 소독을 위해 내시경 소독기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삼천포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
부원장 오 흥 권





사천시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사례

"착한 임대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연번	대상 상가 및 점포	유형	주요내용	비고
총계	참여임대인 : 13명 / 수혜 임차인수 : 57명			
1	사천읍 수양로 1개 점포	임대료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천읍 정의2리 마을회 소유 건물 1개점포 ● 점포 임대료 30% 인하(3월 부터 4월 까지) ● 코로나19 추이를 보고 연장 검토 	
2	어시장길 (선구동) 1개 점포	임대료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 임대료 30% 인하(3월 부터 5월 까지) ● 코로나19 추이를 보고 연장 검토 	
3	팔포음식특화지구 (서금동) 1개 점포	임대료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 임대료 20% 인하(2월 한달간) 	
4	유람선길 (서동) 상가건물 18개 점포 청날샘터길 (서동) 1개 점포	임대료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가 내 18개 점포와 별도 1개 점포 임대료 50%인하(2월 부터) 	
5	팔포음식특화지구 (서금동) 1개 점포	임대료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 임대료 전액 면제(2월 부터) 	
6	사천읍 평화2길 3개 점포	임대료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 임대료 5만원~15만원 인하 (2월 부터 4월 까지) 	
7	사남면 조동길 2개 점포	임대료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임대료 50% 인하(3월 부터 4월 까지) 	
8	삼천포중앙시장 (선구동)	상인회비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천포중앙시장 상인회비 면제 (3월 부터 5월 까지) 	
9	삼천포수협 활어회센터 21개 점포(서동) 삼천포수협 본소 1개 점포(서동) 팔포음식특화지구 2개 점포(서금동)	임대료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천포수협 소유 24개 점포 임대료 50% 인하(4월 부터 5월 까지) 	
10	벌리6길 (벌리동) 1개 점포	임대료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임대료 10만원 인하(3월 부터 4월 까지) 	
11	향촌4길 (향촌동) 1개 점포	임대료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임대료 20만원 인하(3월 부터 5월 까지) 	
12	벌리7길 (벌리동) 1개 점포	임대료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임대료 70만원 면제(3월) 	
13	정동면 사천한보3차 아파트 내 상가	임대료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임대료 10만원 인하(3월 부터 4월 까지) 	



사천시청 지역경제과 ☎055-831-3068
사천시청 세 무 과 ☎055-831-2870

**임대료
인하**





사천의 미래

소중한 아기탄생을 축하합니다



용현면

강건우 (20.8.3.)

건우야, 아빠엄마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
앞으로 아빠, 엄마,
석현이 형, 건우, 우리가족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자. 사랑해!

아빠 강한익♥엄마 강정옥

박지성 (20.7.18.)

용현면

엄마아빠에게 온갖 복을 가져다 준
우리 지성이, 태어난 걸 축하해.♥
많은 복중에 엄마아빠에게 가장
큰 복은 지성이 네가 태어나 준 거야.♥
사랑해.♥ 항상 건강하길 바란다!♥

아빠 박재홍♥엄마 박세나

용현면

성은우 (20.7.10.)

7월 10일 특별한 날
더 특별하게 태어나줘서 고맙고,
많이 사랑해~은우야

아빠 성민준♥엄마 박혜지

주도윤 (20.7.20.)

용현면

세상에 태어난 걸
진심으로 축하한다.
도윤아, 사랑해.♥♥
예은아, 사랑해♥

아빠 주성열♥엄마 이현명

박주한 (20.7.14.)

별용동

엄마아빠 곁으로
와줘서 고아워~~♥
우리가족 잘 지내보자♥

아빠 박근익♥엄마 장벽

사남면

박시아 (20.8.8.)

시아야,
건강하게 자라다오♥

아빠 박국태♥엄마 강은혜

손리아 (20.8.11.)

사남면

리아야, 세상에 태어난 걸
진심으로 축하하고 사랑한다.
건강하게 자라다오.
사랑해♥

아빠 손형석♥엄마 이혜원

이고은 (20.6.9.)

사남면

정말정말 이쁘고 귀한 우리 딸 고은이.
아빠엄마 그리고 언니오빠에게
와 주어서 너무너무 고아워^^
말로 표현하지 못할만큼 정말 많이 사랑한다.
우리딸 지금처럼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자^^
사랑해♥ 너의 존재에 하루하루가 행복한
아빠 엄마 언니 오빠가♥

아빠 이기황♥엄마 빈현주



아기탄생을 축하하는 글을 보내주세요.
사천소식지에 게재 후, 개별 송부해드립니다.

- 대 상 : 사천 출생아 중 신청가구
- 내 용 : 아기에게 전하는 축하의 글
- 신청기간 : 아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아기 출생신고 시 또는 별도 신청 가능
- 접수처 : 사천시청 혁신법무담당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문의 : 사천시청 혁신법무담당관 인구조정팀(☎831-2195)